

자유 리비아, 확고한 민주주의 길에 들어서다



A.J. 토머스 인도 케랄라의 산악 지대에서 태어나 코치의 통신공학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마하트마 간디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부터 영어와 말리알람어로 문학과 문화에 관한 수많은 (인디아 익스프레스) <데칸 헤럴드> 등에 발표했다. 시, 단편소설, 서평 등을 영문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말리알람어와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1993년 카터 번역상과 2007년 인도의 부커상이라 불리는 허치 크로스워드 번역상 등을 수상했다.

관심의 초점이 된 리비아

2012년 9월 11일 뱁가지의 미국 영사관에 가해진 공격으로 주리비아 대사 크리스토퍼 스티븐스(Christopher Stevens)와 세 명의 부하 직원이 사망했다. 새로운 형태의 9·11 사태는 미국에서 만들어져 아랍어 자막이 붙은 채 유튜브에 떠돌던 반이슬람 비디오에 대한 항의 시위가 영사관 밖에서 벌어지던 중 시위자들 가운데 한 무리가 갑자기 자동화기와 로켓 수류탄을 사용하여 공격을 감행하면서 발생했다. 미국 군함들이 리비아 해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뉴스 속보가 곧 날아들었고 전 세계는 며칠간 숨을 죽여야 했다.

당시 그 비디오로 인해서 무슬림 세계, 특히 인접한 이집트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예멘 등에서 이미 자발적인 시위와 그로 인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뱁가지의 유례없는 사건 때문에 리비아는 긴장했고, 2·17 혁명을 조직적으로 폄훼하던 비판자들은 신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구성된 리비아 국회의 모하마드 마가리에프(Mohammad Magarief) 의장과 이제 막 취임한 무스타파 아부사구르(Mustafa Abushagur) 총리가 말 빠른 조치를 취

함으로써 리비아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미국에 사과하고 신속한 행동을 약속했다. 네 명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며칠 후 오십여 명을 추가로 잡아들이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그들은 약속을 지켰다. 한편 리비아 출신의 저명한 영어 소설가인 히삼 마타르(Hisham Matar)는 2012년 9월 13일자 《뉴요커》 칼럼 ‘테리 리 코멘트’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뱁가지 시민들이 리비아의 친구이자 지지자가 리비아인들 손에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고. 뱁가지 시민들은 그 사건을 가슴에 새겼다. 그들은 뱁가지가 혁명의 요람이었으며 카디피와 그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십 개월간의 긴 무장 투쟁 동안 중대한 국가적 활동을 주도했던 것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뱁가지 시민들은 즉각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그들은 무장 세력의 폭력을 비난하는 시위를 매일 벌였다. 2012년 9월 22일에는 거의 삼만 명의 시민들이 (카디피와 싸우고 혁명이 끝나고도 해산하지 않은) 무장 민병대의 기지로 쳐들어갔으며 이로 인해서 민병대의 일부는 즉시 자발적으로 해산했다. 마가리에프 국회 의장도 즉각 무장 민병대를 불법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수천 명의 민병대원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민간인의 삶으로 돌아갔다. 한편 리비아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무장 민병대와 폭력 문화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무장해체를 위한 국민적 노력은 민영 방송인 리비아 알후라(자유 리비아)의 지원으로 한층 더 탄력을 받았다. 미국 역시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예외적인 폭력 사태가 감사와 우정의 리비아 국민 정서와는 별개라고 분명히 밝혔다. 미국과 리비아의 친선 관계를 이간질하려던 이들도 며칠 만에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히삼 마타르가 지적하듯이 카디피 정권하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소규모 권위주의적 과격 종교 단체들이 현재 재결집하고 있으며 “외국인, 여자, (주로 수피 성인들의 무덤)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간헐적인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격 종교 단체들은 이슬람교도들이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카디피에 복종할 것을 촉구했으며 혁명에는 성진(fatwa)을 선언한 적이 있다. 히삼 마타르는 그들의 숫자가 보잘 것 없고 대중적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지만 무모한 행위로 국제적 시선을 끌고자 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정부와 시민 사회가 젊은이들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1920년대 무슬리니 정권하의 밀란 파시오(Miljan Fasocto)의 경우처럼 젊은이들이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영사관 공격이 이들 단체들의 소행인지, 아니면 리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단체들의 짓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리비아의 축소판, 아즈다비아

필자는 지난 사 년 동안 리비아 동부의 아즈다비아라는 도시에서 살며 일하고 있다. 아즈다비아는 독재자 카다피 통치 초기부터 그를 반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리비아 구세를 위한 국민전선(NFSL)은 1970년대 초반부터 카다피에 반대하는 데 앞장 선 조직이었다. 리비아 구세를 위한 국민전선에서 세로이 탄생한 정당인 국민전선은 2012년 7월 7일에 벌어진 총선에서 아즈다비아의 세석을 모두 차지했다. 아즈다비아 출신인 당수 모하메드 마카리에프는 국회의원 에 당선된 후 이백 명으로 구성된 리비아 국회의 우두머리로 선출되었다. 그의 권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국가 수반이다. 그는 여러 차례 카다피를 축출하고자 노력했던 인물로 리비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전 정권으로부터 “가장 박해받은 인물”로 정당과 정치 노선에 관계없이 지지를 받고 있다. 아즈다비아가 제2의 고향인 나로서는 자랑스럽고 매우 기쁜 일이다.

2월 17일에 시작된 혁명은 곧 치열한 전면전으로 변했으며 나토(NATO)의 카다피 공군과 기갑 부대에 대한 폭격에 힘입어 2011년 8월 20일에는 트리폴리를 함락시키고 10월 20일 카다피가 자신의 고향 시르테에서 해방군들의 손에 죽음으로써 최고조에 달했다. 혁명 지도자이자 리비아 국가인수회의(NTC) 의장인 무스타파 압둘 자릴(Mustafa Abdul Jaleel)이 완전한 승리를 선언한 2011년 10월 31일에 혁명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국가인수회의는 이미 리비아 민주화를 위한 로드맵을 선언한 상태로 그에 따라서 해방된 리비아의 헌법을 제정할 제헌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구체적으로 언제 치를지 약속한 상황이었다. 반세기가

지나서 열린 리비아 총선은 서방 언론의 비판적 예상과 달리 평화롭게 치러졌으며 이로 인해서 중도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다. 총 이백 석 가운데 팔십 석이 신생 정당의 후보들에게 할당되었고 나머지 백이십 석은 무소속 후보들에게 돌아갔다. 카리스마 넘치는 전시 총리였던 마무드 자브릴(Mahmoud Jabriri)이 끄는 중도 정치 세력 연합체인 국가세력동맹이 오십 석 가운데 서른아홉 석을 차지했으며 (무슬림형제의 정치 세력인) 정의-건설당이 열일곱 석을 얻었다. 그리고 세석을 얻은 정당의 당수 모하메드 마카리에프는 국회의장 선거에서 백십삼표를 얻은 반면에 경쟁자인 무소속의 알리 자이단(Ali Zeidan)은 팔십오 표를 획득했다. 마카리에프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자이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것이다.” 자이단은 무스타파와 아불사구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2012년 10월 둘째 주에 가결된 후 총리로 선출되었고 아불사구르는 자신의 옛 직책인 부총리 자리로 돌아갔다.

국가인수회의로부터 최고 권력을 넘겨받으며 리비아 국회는 8월 8일에 출발했다. 바로 그 다음날 마카리에프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개원한 8월 20일은 바로 카다피 정권 몰락 1주년 기념일이었다. 현재 리비아는 완전히 민주주의 통치하에 있다. 후시라도 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트리폴리에서 벌어진 차량 폭탄 테러로 두 사람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총리와 내무장관이 국회 첫 회의에서 혼쫓이 났으며 노련한 알-키에브 총리가 국회의원들의 성난 질문에 침착하게 답변하는 모습에서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 *

2·17 혁명이 발발하기 전 이 년 반 동안 리비아에 살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될 날이 오게 되리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민주주의가 놀라운 속도로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리비아를 나토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이상하리만큼—자주 비교하지만 리비아의 범질서 그리고 경제 회복 속도가 거의 백 배나 빠르다는 건 과장이 아니다.

우선 리비아에서는 서방 언론의 지적 같은 범질서 문제가 사실 존재하지 않

았다. 뱁가지의 미국 영사관 습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위와 같이 주장하 고자 한다. 비록 다양한 민병대가 중앙정부의 지휘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 지만 많은 수의 해방 전사들이 경찰과 군에 무기를 반납하고 그곳에서 복무하 고 있다. 부족사회 질서가 가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특히 규모가 작은 도시, 읍, 시골에서는 원로들의 말을 존중한다. 내가 살고 있는 아즈다비아는 2011년 4월 부터 8월까지 카다피 병력의 학정 때문에 서부 도시들로부터 유입된 난민들로 인구가 늘기는 했지만 트리폴리와 같은 일부 리비아 서부 도시들에서처럼 약탈, 강도, 납치, 살인 등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총선은 매우 평화로웠는데, 사실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발전된 현대 문화를 자랑하는 나의 고향 (남인도) 케랄라주의 선거보다 더 평화로웠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벌어진 선거였고 준비할 시간조차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투표율(육십오 퍼센트)을 기록했 다. 튀니지와 이집트가 혁명 후에 국민들과 군대 간의 유혈 권력투쟁을 겪고 있 는 상황에서 리비아는 이렇듯 혁명의 결과물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례로 임 중되고 있다. 필자는 혁명이 시작된 바로 일 년 반 전에 이러한 결과를 예측했 으며, 그 후로 인도에 실린 기사와 TV인터뷰 등을 통해서 리비아인들이 품위 있 는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부 일부 지 역의 극단주의 분파 단체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리비아인들은 지금 사실상 그들이 바라던 것을 얻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다는 건 정말 기 분 좋은 일이다.

다른 하나는 리비아의 경제적 요인이다. 정치적 격변에서 벗어나고 있는 대다 수 제3세계 국가들과 달리 리비아는 혁명 후에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 리비아로 환수된 자산으로 국가적 요구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다피 정권이 외국에 불법적으로 숨겨 둔 자금이 식육어 천만 미국 달러에 달한다. 식육의 구심 퍼센트 이상인 리비아 동부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카다피 정권의 파괴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해방 전사들 덕분에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혁명 초기 단계에 카터트 같은 지지국 가들은 해방 전사들이 생산한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리비아 경제의 구심오 퍼센트를 차지하는 식육은 2012년 2월에 생산량이 최대치로 회

복되었다. 이런 이유로 리비아 디나르 화폐 가치가 카다피 통치 기간에 떨어진 끔찍한 정치적 파탄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안정세를 보였다. 카다피 정권이 2011년 8월에 무너지자 외국 기업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리비아 기업들과 함 께 외국 기업들은 석유 부문, (국제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나토의 폭격은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하지 않았다) 사회 기반 시설, 서비스 부문 등을 개혁했다.

이해할 수 없는 귀환

자유 리비아와 내가 조우하게 된 건 카다피가 죽고 리비아 국가인수회의가 정 부 지휘권을 가진 후에 내가 인도에서 돌아오고 나서다. 혁명이 휘몰아치던 2011년 2월 말 필자는 약 이만 오천 명의 인도 동포들과 함께 고향으로 대피했 다. 2012년 1월 6일에 동료 한 명과 함께 나는 리비아로 돌아왔다. 인구 십이만 육천 명의 아즈다비아가 하늘, 땅, 바다로부터 2011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 지 한 달에 걸쳐 무자비하게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나는 내 학생, 동료, 그리고 지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지 온갖 걱정을 했다. 리비아에서 그곳만이 그런 공격을 당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했다. 귀환 은 내게 일종의 작별과도 같았다. 나의 도시, 아즈다비아로 돌아가지 않고 인도 에서 계속 살기는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 *

이야기들

카다피가 정권을 비난하던 작가와 시인들을 사실상 침묵시켰지만 민속 시인 과 가수들은 시골을 떠돌아다니면서 들리지 않으려고 비밀 언어로 만든 지향의 노래를 불렀다.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진 그 노래들은 계속 불려졌다. 지방의 “현 지들” 역시 억압에 대한 감정을 표출했다. 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무만 알칸디

(Muman Alkhalidy)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의 할아버지가 서남쪽으로 칠백 킬로미터 떨어진 외딴 사막 마을인 타제트부에 살고 있는 보기 드문 “현명한” 노인이었는데, 그는 카다피가 1969년 집권하기 십 년 전부터 “카다프르의 아들이 리비아를 몽둥이로 내리칠 것이지만 백인 양치기가 그를 몰리치고 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다…….”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백인 양치기”는 나토에 적합한 호칭이 아닌가! 무반의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도 그가 그렇게 말하며 오랜 세월동안 떠돌아다니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며, 독재자가 실권을 장악한 후에도 그 일은 계속 되었다고 한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무반은 내게 혁명에 참가한 사람들 대부분이 얼마나 정의롭고 올곧은지 설명했다. 일례로 뱃가지의 방 한 칸짜리 헛간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시르테를 한 가난한 젊은이가 시르테 전투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시르테를 함락시키고 수색 작전의 일환으로 어느 집에 들어가 그는 신부를 위한 금 장식품들이 가득한 꾸러미를 발견했다. 물건을 집에 싸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집을 나서면서 젊은이는 핸드폰 번호와 다음과 같은 간략한 메모를 써서 응접실 벽에 남겼다. 글을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 증거를 가지고 찾아오면 주인에게 돌려 주겠다고. 젊은이는 글을 가지고 뱃가지로 돌아왔다. 이주일 후 평화와 질서가 확립된 시르테로 되돌아온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젊은이는 그의 가족을 초대했다. 그들은 금장식품들이 온전한 것을 확인했다. 매우 부자였던 주인은 젊은이의 기난한 환경을 접하고는 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하면서 자신이 그런 일을 한 것은 오히려 옳은 일이기 때문이며 그로 인한 어떤 보상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자가 계속 고집을 피우자 젊은이는 작은 기념품만 가지고 나머지 금은 모두 돌려주었다.

* * *

무반은 리비아 지식인들이 처한 불확실성과 불안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이름을 밝히기는 꺼린 안면 있는 대학 교수 두 명이 2007년에 결혼

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했다. 한 달에 칠칠백 디나르를 버는 그들은 여러 곳에서 과외를 하고 있었다. “카다피가 과외를 못하게 하면 어찌지? 그러면 기본급 삼백 디나르밖에 남지 않는데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겠나?” 대수로 공사에 소속된 엔지니어 알리 술탄(Ali Sultan)은 필자에게 한 달에 오백 디나르밖에 되지 않는 기본급만 받고 후직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완곡하게 설명했다. 그와 이 년 전에 대화를 나누었을 때도 그는 삼 년에 걸친 강제 후직을 당하고 있었다. 이십오 년간 봉직 했음에도 그는 결국 자기용으로 택시 영업을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무반은 카다피가 개인을 인정하는 문화를 조직적으로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리비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은 단지 숫자일 뿐이다. 최고 골잡이나 스타플레이어는 결코 인정을 받지 못했다. 예외라면 리비아와 외국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루게임을 조작하던 카다피의 아들 사디뿐이었다. 무반이 들려준 또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은 훌륭한 경제학 교수이자 우주공학, 로켓 기술, 전자, 수학에도 능했으며 아즈다비아 젊은이들의 교육에 앞장선 인물이었다. 또한 아즈다비아 사비아 지역의 우두머리 역할을 추가로 맡기도 해서 “아즈다비아 담당 장관”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화로 어느 날 뱃가지 공항에서 오르단의 암살과 왕을 카다피 대신 영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든 공직에서 면직되었고 하루에 7디나르를 받으며 개인 과외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카다피가 국민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시키는지, 또한 어떻게 직장, 계층 문제 등에 관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 * *

지난 칠천 년 동안 동부 리비아(사이레나이카 또는 버르카)와 남부 리비아(페잔)에는 계속해서 인간이 거주해왔다. 현재의 리비아인들은 대부분 백인으로 남쪽으로 이주한 지중해인들의 후손이다. 또한 피부가 검은 토착 리비아 부족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부족들과는 다르다. 또 다른 흑인

리비아인들도 있는데 이들의 육체적 특징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혈통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 무하마드 아보 사할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많은 리비아 부족이 아프리카 흑인들과 피를 섞어서 탄생한 혼혈 흑인 리비아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혼혈인들이 가장 많이 속해 있는 부족이 이즈자이아(izwaiyyas)이다. 무하마드의 증조부는 흑인 여성을 노예로 거느렸고 둘 사이에 자식들이 생겼다. 지금 그들의 손자들이 부족의 일부가 되어 무하마드를 “사촌”이라고 부르고 그의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부른다. 그들이 부족에 속하게 된 긴 실용적인 목적 때문이다. 쿠프라에 있는 이즈자이아인들 가운데 특히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은 집에 백인 이즈자이아 아내 말고도 그들이 자주 방문하는 수단에도 현지치를 두고 있다. 최종 계산을 할 때 수단의 아내로부터 낳은 자식들도 이즈자이아인으로 간주되며 쿠프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혼혈 흑인 이즈와이아인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혼인 관계로 이즈와이아인들과 인연을 맺는 흑인 투부(Tubu)인들에게도 해당된다. 최근 쿠프라에서 벌어진 투부인들과 이즈와이아인들 사이의 충돌은 이러한 연결 고리가 없는 차드 지역 출신의 투부인들이 몰래 들어와 리비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사실 모든 리비아 원주민들은 부족, 씨족,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죽보를 추적함으로써 입증 가능하다. 대부분이 베두인 사람들인 그곳 문화에서 이는 당연하다. 무하마드는 도시의 집에서 살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삼촌들이 소유하고 있는 양과 낙타를 돌보며 사막에서도 생활한다. 아라비아와 다른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이슬람의 전파와 함께 오래전에 넘어온 사람들은 리비아 부족 공동체에 이미 통합되어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시리아, 또는 이라크 난민들과 같은 최근의 이주민들은 오십 년이나 육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으로 취급받으며 리비아 시민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리비아인들이 부족 중심이라고 비난하는 서구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지상의 현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족적 연대는 진정한 리비아인의 첫 번째 특징이다. 없애고 싶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세계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리비아에 서구식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거나 공공 기관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부족적 연대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이 서구 사회의 특징이듯이 “부족”은 리비아 사회의 특징이다. 이즈다비아에는 총 열여섯 개의 부족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서로 혼인을 맺어서 마치 대가족처럼 혈연관계를 맺고 있다.

* *

카다피 정권 때와 다른 두 가지가 눈에 띄었다. 첫 번째는 5월 1일 노동절을 국경일로 선포한 것이다. 노동자 개인을 인정한 점이 이전과는 매우 달랐고 이는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일반인들도 노동절의 정신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날 하루를 즐겼다. 두 번째는 필자의 집 맞은편에 위치한 키스르 기지에서 7월 12일에 개최되는 세속적 성격의 시 축제이다. 타블라 같은 북을 두들기고 랩을 부르며 민요를 생음악으로 연주하면서 첫 번째 축제를 열었다.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밝혔다. 무하마드 아보 사할이 나를 초대했다. 그는 그 행사가 동부 리비아의 사흘짜리 축제로 시, 민요시, 민요 등을 선보이며 이즈다비아, 데르나, 토브룩, 알바이다 등에서 온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시가 정치적이었다. 혁명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이해가 되었다. 카다피가 주체로 많이 등장했는데 그중에서도 혁명 때 아들이 사망한 이즈다비아의 시인 자브릴(jabril)의 비판이 인상 깊었다. 전형적인 시인의 모습을 한 젊거나 나이는 사람들도 많았다. 대역섯 명이 둥근 다담상에 앉더니 막대기를 두드리 박자를 맞추면서 시를 낭송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비슷한 축제들이 카다피 시절에도 개최되곤 했었다. 그러나 행사를 조직한 것은 혁명위원회였다. 시를 낭송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압박감에 시달렸다. 모든 단어가 분석과 해석의 대상이었다. 한 글자라도 잘못 사용하면 아무 살림에서 무기징역을 살거나 사형을 당할지도 몰랐다! 지금 완전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데 그들은 자유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Free Libya Firmly on the Democratic Path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필자의 집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높은 단상에서 이 옷의 “현자”들이 매일같이 모여 여러 시간 동안 “토론”을 벌인다. 리비아인 친구들은 그들이 “잡담”이나 나눈다고 무시하지만 토론의 내용이 정치, 국가적 사건, 정치적 음모, 지역 문제, 총격전 등등임은 인정했다. 내가 아랍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편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구들도 종종 장시간에 걸친 토론의 흥미 있는 부분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고 싶어 한다. 그들은 대화의 내용을 조금씩 듣고서 놀랄 만한 세부 사항을 짚어준다. 내가 그리 한 토론을 즐기는 이유는 친구들에게 매우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케랄라주에서 벌어지는 “잡담” 정치 토론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요컨대 이곳에서 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 토론의 풀뿌리 실천이라는 것이다! 카다피 정권하에서 그러한 모임은 상상치도 못할 일이었다. 설령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어깨너머를 살피며 후시나 누가 엿듣고 보안 요원들에게 자신들을 밀고하지나 않을까 걱정해야 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밀고자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열기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러나 일 년도 채 되지 않아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상황이 변했다. 지금 이 집에서 십 개월간 머물고 있는데(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2012년 10월이다), 매일 그들의 말소리가 새벽 늦게까지 들린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밤 창밖에서 왈지않게 벌어지는 자유의 찬양 말고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A.J. Thomas A.J. Thomas (b.1952) is an Indian-English poet, fiction-writer and translator with one collection of poetry and many works of translation to his credit. He translates poetry and fiction from Malayalam into English and vice-versa. He also reviews books. He is the recipient of the Katha Award, the AKMG Prize and the 2007 Crossword Award. He presented papers and was a guest speaker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Australia, Thailand, and Nepal as well as in South Korea. He voluntarily retired in 2010 as Editor of *Indian Literature*, the 200-page bimonthly English journal of Sahitya Akademi (The National Academy of Letters, India) and is serving as its Guest Editor now, while teaching English at Benghazi University, Ajdabiya Branch in Libya.

Libya in Focus

The newest version of ‘9/11’ saw the US Ambassador to Libya, Christopher Stevens, and three of his staff, killed in an attack on the US Consulate in Benghazi on 11 September 2012. A group of people using automatic weapons and rocket-propelled grenades suddenly launched the attack from among the demonstrators outside the compound protesting against an anti-Islamic video which had its origin in the US and was circulating on YouTube with Arabic sub-titles. Soon there was the newsflash that American warships were headed for the Libyan coast and people around the world held their breath for a couple of days.

Spontaneous protests and ensuing violence had erupted all over the Muslim world, especially in the neighbouring Egypt and the politically volatile Yemen, over this video. However, the unprecedented happenings in Benghazi kept Libya on tenterhooks, and the Libya-bashers and cynics who had been systematically running down the February 17 Revolution had a field-day. Nevertheless, the quick measures adopted by Mohammad Magarief, the new President of the just-elected Libyan National Congress, and the Prime Minister Mustafa Abushagur, who had just sworn-in, clearly spelt out where Libya stood. Both of them apologized to the US, and promised immediate action. They followed up on their promise, first by the arrest of four suspects, and, a couple of days later, by the rounding up of fifty more, and also by launching an enquiry. Meanwhile, the citizens of Benghazi declared that they had hung their heads in shame in having had a friend and well-wisher of their city and country to lose his life at the hands of some people operating from there, as Hisham Matar, the renowned English fiction writer from Libya points out in the “Daily Comments” Column of *The New Yorker* dated 13th September 2012. The citizens of Benghazi took this event to their hearts, as they have always been proud that their city was the cradle of the revolution and that they had consistently led the way for all nationally important moves during the ten-month long armed conflict that saw the demise of Gaddafi and his totalitarian regime.

Benghazians immediately took positive action, too. They began to organize demonstrations denouncing the violence of the armed sections of the population day after day. On 22 September 2012, a nearly thirty-thousand-strong citizens’ force overran the bases of

the armed militias (who had fought against Gaddafi and not disbanded after the revolution was over) in the city, resulting in the immediate voluntary disbandment of some of the militias. This also prompted President Magarief to immediately outlaw armed militias; thousands of militiamen laid down their arms and returned to civilian life. Meanwhile, hundreds of thousands of citizens all over the country continued their protests against armed militias and the culture of violence. The efforts to disarm the entire armed population are on full swing, facilitated and orchestrated by the private TV Channel Libya Al Hurra (Free Libya). The US, on its part, made it clear through the several public pronouncements of President Obama and Secretary of State Hilary Clinton, that it saw the stray violent incidents separately from the national sentiments of the Libyans which had been those of gratitude and friendship. Those who had hoped to drive a wedge through the close US-Libya relationship had to accept defeat in a matter of days.

However, as Hisham Matar observes, there are minuscule ultra-religious and authoritarian groups that had been suppressed under Gaddafi’s regime now regrouping and leading attacks against “foreigners, women, architecture (the tombs of Sufi saints, mainly)” in sporadic incidents. These ultra-religious groups had released a fatwa against the revolution, urging full obedience to Gaddafi, citing the argument that Muslims should respect authority! Hisham Matar notes that though negligibly low in number and with almost nil popular support, they can effectively draw world attention through desperate acts. More importantly, unless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take care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aspirations of the young people, there is the danger that the

handful of extremists may draw them into their fold, the way the Milan Fascio did under Mussolini's leadership in the 1920s.

We will have to wait and see whether such groups were responsible for the consulate attack, or whether there were foreign groups operating on Libyan soil.

Ajdabiya, a Microcosm of Libya

I have been living and working in the east Libyan city of Ajdabiya for the last four years. Ajdabiya has been crucial in the opposition against the ousted dictator Muammar Gaddafi from the earliest days of his rule. The National Front for the Salvation of Libya (NFSL) has been the foremost organization in opposing Gaddafi from the early 1970s. The National Front, the new political party that has emerged from the ranks of the NFSL, won all of its three seats from Ajdabiya in the National Elections held on 7th July 2012. Its Chairman, Mohammed Magarief, a resident of Ajdabiya and one of the four representatives from here, has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two hundred-seat National Congress of Libya. He is the de-facto Head of State, with yet-to-be defined powers. He is well known all over Libya as the man who attempted several times to oust Gaddafi, and as the "most hunted man" by the erstwhile regime, and enjoys support across party and political lines. As an Ajdabiyani by adoption, I am proud and elated.

The "17 February" Revolution had soon become a bitterly fought, all out war, and, aided by NATO-led aerial bombardment of Gaddafi's air-power and armour, culminated in the fall of Tripoli

on 20th August 2011 and the death of Gaddafi himself in his hometown Sirte at the hands of the freedom fighters on 20th October. This revolution officially came to an end on 31st October 2011, with the declaration of full victory by Mustafa Abdul Jaleel,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of Libya (NTC), the leader of the revolution. The NTC had then declared a roadmap for the democratization of Libya, according to which a General Election for the formation of a National Congress, which would draw up a Constitution for the newly freed country, was promised to be held within a strict time frame. The Libyan General Elections, held after more than half a century, went off peacefully, contrary to the many sinister predictions by the western media, and showed the emergence of moderate political forces. Of the 200 seats, 80 were reserved for candidates of newly emerging political parties, while 120 were reserved for independents. The confederation of moderate political groups, National Forces' Alliance, led by the charismatic war time Prime Minister Mahmoud Jibril won 39 of the 50 seats, while the Justice and Construction Party (the political arm of the Muslim Brotherhood) won 17 seats. And yet, Mohammed Magarief, the head of the party that won just three seats got 113 vot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while his close opponent, the independent Ali Zeidan, won 85 votes. Conceding victory to Magarief and congratulating him, Zeidan said, "This is democracy. This is what we have all dreamt of." Ali Zeidan has since been elected Prime Minister, following the no-confidence motion against Mustafa Abulshagur, who reverted back to his old position of Deputy Prime Minister, in the 2nd week of October 2012.

The Congress came to life taking supreme power the NTC

handed over on 8th August. Magarief was elected president the very next day. The Congress met for the first time on 20th August,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fall of the Gaddafi regime. Now, Libya is under full democratic governance. If anyone had doubts, they would soon have been dispelled by the way the then Prime Minister and the Interior Minister were pulled up in the very first session of the Congress in connection with the car bomb blast in Tripoli that had killed two, and how the Prime Minister, the seasoned Al-Kieba, calmly answered angry questions by the representatives.

* * *

I had never imagined there would come a day when I can write like this from inside Libya during the two and a half years I had been living here prior to the February 17 Revolution. The amazing speed with which democracy has set in here is not to be wondered at. The often heard, but actually odd, comparison and contrast with the other two NATO-survivors—Iraq and Afghanistan—that the recovery rate in Libya's law and order and economy is nearly a hundred times more, is no exaggeration.

To begin with, there has never been an actual law and order problem here, as the western media had made out. I am making this assertion in spite of the US Consulate attack in Benghazi. Though it was true that various militias refused to be drawn into a central command, a large percentage of the freedom fighters had eventually surrendered their arms and enlisted in the police and armed forces. The positive elements of the tribal order of society

had seen to it that the word of the elders was respected, especially in smaller cities, towns and the countryside. My city, Ajdabiya, though its population had burgeoned due to the influx of refugees from cities of the west where Gaddafi forces were brutalizing people from April to August 2011, had never experienced looting, robbery, hold-ups or murders as in some west-Libyan cities like Tripoli. The National Election was most peaceful—in fact more peaceful than in my own home-State of Kerala (South India), which boasts of 100% literacy and high-modern culture—and with maximum possible turnout of voters (65%), though there had been little time for preparations especially in view of the fact that this was an election taking place for the first time in sixty years. Tunisia and Egypt having experienced bloody power tussles post-revolution, between the people and the army, Libya is proving to be the most successful of the Arab Spring products. I had predicted this outcome a year and a half ago at the very outbreak of the revolution, and had ever since maintained in my articles and TV interviews in India that Libyans want peace and freedom with dignity and they will certainly have it. And now they have really achieved it, despite the teething trouble they have on account of splinter groups of extremists in some pockets of the eastern region. It is indeed a sweet feeling to be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The other factor is the economy of the country. Libya never had to avail loans from IMF or World Bank in the aftermath of the revolution, unlike most third world countries emerging out of political upheavals, as the assets returned to Libya is taking care of national needs. The assets that the old regime had illegally stashed away in foreign countries amount to 1.61 billion USD. Oil

production, more than 90% of which is confined to the eastern part of the country, had never really suffered, as the freedom fighters had successfully fended off sabotage attempts by Gaddafi forces. During the earliest stages of the revolution, supporters of the revolutionaries like Qatar had made arrangements for sale of oil produced by the freedom fighters. Oil accounts for 95% Libya's economy, and oil production returned to full capacity around February 2012. As a result, the Libyan dinar remained more or less stable in spite of the terrible political catastrophe befalling the country as Gaddafi clung to power. Foreign companies had begun to return once the former regime had fallen in August 2011. Along with Libyan companies, they revamped the oil sector, infrastructure capacity building (contrary to international media campaigns, NATO bombardment had not hit civilian infrastructure), and service sector.

The Enigma of Arrival

My tryst with Free Libya had begun when I returned from India after Gaddafi's death and the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s taking over of the reins of the government. I had been evacuated to India along with nearly twenty-five thousand other Indians towards the end of February 2011, as the revolution raged. I had reached back Libya on 6th January 2012, along with a colleague. It was against the advice of friends and well-wishers and amidst the apprehension of my family concerning my safety in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situation in Libya that I had decided to return. I had felt all kinds of forebodings about what would have happened

to my students, colleagues, and acquaintances when Ajdabiya, a city with a population of 126,000, was attacked relentlessly from air, land, and sea for a month from March 15 to April 15 2011. It was the only place in Libya to be so attacked. There was no way of knowing what had really happened. This return was a kind of closure for me. It would have been very difficult for me to live on in India without returning to my city.

* * *

The Narrations

There were several tales of heroic resistance against the forty-two-year-long dictatorship. There were also tales of extraordinary honesty and integrity, and many other tales that threw light on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ose trying times. Friends, colleagues, and acquaintances opened up, now that the fear of the dictator and his all-pervasive spy network was gone.

The family of Hisham Matar lives in Istanbul Street of Ajdabiya. His father Jaballa Matar had been in the Libyan Foreign Service. Hisham was born in New York and had his initial education there, while his father was working in the Libyan Mission in the UN. Upon his return to Tripoli on transfer, Jaballa had disagreements with the style of functioning of Gaddafi: the regime was very hard on him in its response and he had to go into exile in Cairo in 1989. But the dictator's secret agents had made him "disappear" within a year. To date his whereabouts are unknown. Hisham was barely twenty then. After the revolution, Hisham returned to his ancestral family

home for the first time in 33 years. Another friend and colleague in the English Department, Muhammad Abo Sahal, took me to meet him. I conducted a brief interview with him for my journal *Indian Literature*. His uncle, Jaballa's brother Mahmoud, and other members of the family had been imprisoned when Jaballa had gone into exile. I spoke with Mahmoud, too. His son, Izz-al-Arab Matar, a second year engineering student, had fallen to a sniper's bullet on August 23, at Gaddafi's Bab al Aziziya Compound in Tripoli, which he had helped capture three days earlier. I had read Hisham's tribute to his cousin published in *The Guardian* months before.

* *

Though Gaddafi had effectively silenced writers and poets who criticized his dictatorship, folk poets and minstrels roamed the countryside, singing songs of resistance worded in cryptic language so as not to give themselves away. Common people caught on and clung to these songs. Local "wise men" too would vent their feelings about the repression. Muman Alkhalidy, a close friend and colleague, told me that the grandfather of one of our students, a rare "wise" old man living in Tazerboo, a remote desert town some 700 kilometres southwest, had predicted even a decade before Gaddafi came to power in 1969, that "the son of the Gaddadfa would hold the Libyans down with a stick; but the white shepherd will defeat him and liberate the country..." Isn't "White Shepherd" an appropriate appellation for NATO! Muman's parents and other family members had witnessed him saying thus and wandering about over many years, and continuing even after the dictator had seized power. Everyone thought that he was mad then!

Muman had told me how just and upright most of the revolutionaries were. For example, a poor youth of Benghazi, who lived with his mother and sisters in a one-room hut, had acted in an exemplary manner during the Battle of Sirte. As Sirte fell, he had entered a house as part of his search and combing operations and came upon a bundle full of gold ornaments meant for a new bride. He packed the ornaments and kept it safely with him, and left his cell-phone number and a brief note scribbled on the drawing room wall, saying that he has taken the gold for safekeeping and can be contacted for reclaiming, if the owner approached him with evidence. He returned to Benghazi with the gold. After two weeks he got a call from Sirte from the master of the house who had returned when peace and order had been established. The boy invited the family over. When they came, they found that all the ornaments were intact. The man was very rich; so, upon seeing the pathetic circumstances of the young man, he offered him half the gold. But the young man refused, saying he was merely doing the right thing and he would not take any reward for it. But the other man insisted. The young man kept some little souvenir, and let the man take all the gold back.

* *

Life during these months after my return has been exciting, to say the least. For one thing, you are greeted by automatic gunfire anytime of the day. One would get the impression that bloody shoot-outs are taking place. But no, you won't find any casualties, as the firing is mostly skyward! As an old Libyan acquaintance put

it, with a knowing wink and a wry grin on his wizened face, it was just “Babies! Playing....” When the revolutionaries had overrun the armouries of Gaddafi, they found rockets, grenades, cannons and other heavy guns and ordnance in the ones in Ajdabiya. But those in the eastern cities like Derna had big caches of assault rifles and other light arms. Soon they were sold to the population at whatever price they brought, with the effect that while the freedom fighters laid down their arms, the general population is all armed! And some young people had become millionaires overnight! But, as I said before, the tribal order sees to it that law and order is not broken. Only that “babies” will play... But such “play” had prepared the ground or the camouflage for a real attack that claimed the lives of the US Ambassador and three other Americans! Libyans seem to have learned a bitter lesson and decided that enough is enough, and there should be an end to this “play”!

* *

Muman gave an example of the uncertainly and insecurity in which the educated Libyans found themselves. Two university teachers we know, whom he didn't want to name, told him in 2007 why they didn't marry. They were getting 1,700 Libyan dinars per month, with extra teaching assignments in various places. “What if Gaddafi takes away our extra assignments? We will just be left with LYD 300, the basic pay, and how do you expect us to run a family then?” I remember the engineer Ali Sultan attached to the Great Manmade River Project saying euphemistically that he was asked to go on leave, with his basic salary, which wouldn't come to more

than LYD 500 per month. He was on this forced leave for the last three years when he spoke to me two years ago. Despite his 25 years of service, he was reduced to driving his car as a taxi!

Muman said Gaddafi systematically wrecked the culture of individual recognition. The Libyan Football team members would only have numbers. The top scorers or stars were never allowed to be recognized, except his son Saadi who manipulated the game to his advantage within the country and abroad. Muman narrated the case of a venerable teacher of economics, who was equally at home in aeronautical engineering, rocket technology, electronics and mathematics, who had taken a principled leadership in the education of the youth in Ajdabiya. He was given the additional charge of the Head of Ajdabia Shabia(Division), and was known as the “Minister in charge of Ajdabiya.” He was delegated by Gaddafi to receive King Abdulla of Jordan at Benghazi airport once, which showed the importance the man had. The very next year he was out of all his official posts for no apparent reason, and was left taking private tuitions for 7 dinars a day! This is an illustration of how Gaddafi reduced people to nothing overnight, and set them in a general uncertainty about career, class, etc., in a psychopathic strain.

* *

Mentioning about Hisham Matar's novel *In the Country of Men*, my other friend Muhammad Abo Sahal said things were exactly the same as it was described in the book. In the Al Fatah School in Ajdabiya, in the 1980s, four students were publicly hanged to death,

branded “traitors.” Earlier, the 1976–77 Students’ Revolution had come to a bloody end with several hanged to death all over the country, as described in the novel. Exactly as depicted in the novel, a lot of people had truly believed they were traitors and had cheered when they were hanged. When Muhammad returned from school and his father and mother were weeping for the boys, he was at first confused. Then he naturally believed his parents’ version. But many boys of his age were not that lucky to know the truth. And the crowning tragedy was that large sections of the general public didn’t bother either way. As long as they were not affected, they were happy with their existence and were indifferent.

* *

Muhammad described an incident that happened in the middle of the one-month siege of Ajdabiya from 15th March to 15th April 2011. On 9th April, one of the worst days of the war, battle raged from morning till evening, with NATO bombers destroying Gaddafi’s armoured forces and soldiers on both sides firefighting in the streets. By about 5 pm when the battle was over, he went to the Western Gate, where he found cars and vehicles still burning, and bodies strewn about. People, who had arrived on the scene a little earlier, told him that the residents took several surviving Gaddafi soldiers to the hospital. He also saw some elderly men of Ajdabiya covering the bodies of the dead Gaddafi soldiers with white sheets and trying to give them an honorable burial according to Islamic code. Even in battle, and even with people who had come to kill and rape their people, the wise men of Ajdabiya did not have a

personal grudge: They said, “The sin in killing these ones are not ours; it is on him who sent them.”

* *

For the last 7,000 years, Eastern Libya (Cyrenaica or Barqa) and South Libya (Fezzan) have had a history of continuous human habitation. The present-day Libyans are predominantly white, the descendants of the Mediterranean people who migrated south. There are also dark-skinned indigenous Libyan tribes, but they are different from the sub-Saharan African tribes. There are also other black Libyans, who clearly exhibit sub-Saharan lineage in their physical features.

Muhammad Abo Sahal explained this phenomenon: Black Africans mingled with many of the Libyan tribes, giving rise to mixed and black Libyans who are included in the tribes. Izwaiyyas have the most number of such people. He said his great grandfather kept a black woman slave, with whom he had children. Now, their grandchildren are part of his tribe, and call him “cousin,” and his father, “uncle.” They are part of the tribe for all practical purposes. In Kufra, Izwaiyyas, especially long-distance truck operators, would have wives in Sudan where they frequent, as well as their white Izwaiyya wives back home. When the final count came, the children from the Sudanese wives also would be considered as Izwaiyyas, and would travel to their father’s house in Kufra. This has given rise to mixed and black Izwaiyyas. The same was true of black Tubus, who were linked by marriage with Izwaiyyas. The recent conflict in Kufra arose between Tubus and

Izwaiyyas, when Tubus from Chaad who were not so connected also tried to sneak in and claim that they were Libyans.

The reality was that all original Libyans were connected to their tribes and clans and regions, which could be proved by tracing their ancestry. This is natural in Libyan culture, as most Libyans are predominantly Bedouins. Muhammad said he has lived in houses in the city, and tents out in the desert tending sheep and camels, which his father and uncles owned. Those who came from Arabia and other Middle Eastern and North African countries long ago, along with the spread of Islam, have integrated with the Libyan tribal communities. However, recent immigrants like refugees from Palestine, Syria, or Iraq were treated as refugees even after 50 or 60 years of their stay; they are not counted as Libyan citizens. Westerners and others, who criticize Libyans for being tribal, do not understand or accept the ground reality. Tribal affiliation is the first mark of any genuine Libyan. One cannot wish it away; instead, the world should accept it. The absence of the western type “individual” in Libya also can be explained this way. Whatever government that is formed, or public institutions that come up, will have to rightly accommodate tribal affiliations in a natural way. Just as the “individual” is the mark of western society, “tribal” is the mark of Libyan society.

All the tribes in Ajdabiya, about 16 of them, are inter-married and related to one another—it is like one big joint family.

* *

Two events that marked the change over from Gaddafi’s regime

caught my eye. The first one was the declaration of 1st May, Labour Day, as a national holiday. Recognition of the individual worker was something very different from the earlier practice and was in consonance with international practices. Even the ordinary people took it in its right spirit, and workers enjoyed themselves on that day.

The second one was a secular kind of poetry festival held in the Qisr(fort) grounds opposite my house on 12th July. Tabla or dhol beating, rap, folksongs, all came on live, marking its inauguration. Fireworks lit up the sky. Soon Muhammad Abo Sahal called me. He informed me that it was a three-day poetry, folk-poetry, and folk-song festival of Eastern Libya, with many poets (“shairs”) from Ajdabiya, Derna, Tobruk, AlBayda etc, participating. Most of the poems were political—with the revolution so recent, something understandable. Muammar Gaddafi was the subject of many a recital. Jabril, the poet from Ajdabiya whose son was killed in the revolution, was spectacular with his denouncement of Gaddafi. Quite a few young and older men, with the typical poet-look, were there. Then five or six of them got together for a special kind of recital with a round teapoy in front, on which they kept time with a stick.

Atef, one of our colleagues, was all over the place, with his photo-shoot. I think it was through his handiwork that the master of ceremonies welcomed to the audience, “Dr. Thomas, doctor Angrezi, Jamia,(Dr. Thomas, Teacher of English in the University) who wrote nice things about Ajdabiya in India, and is a friend of Libya and Libyans.” Also, Muhammad Abo Sahal was congratulated for inviting me.

Similar festivals used to be held during Gaddafi's time as well. But it was the Revolutionary Councils who organized them. Anyone who recited poems was under tremendous strain. Each word they uttered was analysed and interpreted. A false word could mean a life term in Abu Salim or death! So, now when they express total freedom of expression and relish it, they certainly know what freedom means!

* *

And life goes on...

Like all orthodox societies that develop around pastoral-agricultural-tribal backgrounds, Libyan traditional people are very conservative. They are like my own Catholic community of the pioneering homesteaders in the hilly regions of central Kerala in south India. My forebears were people who cleared the land by setting fire to the bush and forest for dry-land-paddy cultivation, sowing paddy seeds where the hoe-cut fell; extensive stretches of land was thus cultivated jointly with relatives and friends, and the paddy crop shared. They were perennially engaged in cultivating cash crops like pepper, cardamom, tea, coffee, rubber, etc. In those days, they were Sunday church-bound, as most of the people here are Friday mosque-bound. The lady of the house or a girl who crossed the age of puberty would never come to the front veranda or stand before a man who was not an immediate family member or an intimate family friend, as it is in Libya even now, where the mindless segregation of women is not practiced; neither is it like in

the Emirates or some other Gulf States where women and men are more liberal in interactions, and the society is much more westernized and materialistic(which unfortunately my Kerala community too has become over the last fifty years!).

The westerners who talk of tribalism or brand them Islamists may hardly understand these people.

* *

Dreamers and visionaries spearhead revolutions, destroying an existing power structure. In the vacuum thus created, they are not usually able to immediately create and add something constructive. Pragmatists and opportunists grab this opportunity and implement their agendas. Throughout history, revolution after revolution has thrown up this model—be it the French Revolution, the Russian Revolutions, the Chinese revolutions, or the latest Arab Spring revolutions. Like a volcanic eruption that spews hot lava and ash, which in later ages will tend to add to the soil's fertility, revolutions usually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in the distant future, and chaos and mayhem in the immediate present. But the Libyan revolution could be an exception to this rule. Because, within a year of the beginning of the revolution, they have had a full-fledged, peaceful general election, which has brought to the front centrist political forces that could draft a really inclusive Constitution for the country. The economy and law and order situation have grown admirably stable. If credit could be given, it should be to the Libyan character of resilience and nonchalance. Even when fighting raged, people did not run in panic; they were

seen ambling about or striding! During the initial days of the revolution, when fighting was going on, and shelling and aerial bombardment were imminent, people were sitting in cafes, eating and drinking peacefully!

* *

There are some interesting similarities between Libyans and Koreans. Both pronounce the English 'p' interchangeably with 'b'. For example, in Korean, 'Pusan' would be written as 'Busan,' but pronounced with a sound in between 'b' and 'p'. In Arabic too (Libyans speak Arabic; though it was introduced here along with Islam, it has now acquired the status of mother-tongue) the 'p' and 'b' confusion is the most common.

Libyans enjoy squatting around a platter and Koreans, around a low table, sharing food with friends and family. This collective eating keeps them together, as families, intimate groups.

Both are monolingual/monocultural societies. In the past, both have not been very much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the outside world, though they are trying hard now. But on the positive side, both are very strong about their own roots. Both used to scorn English; of late, both are trying to learn it for its advantages as a global language; but both are wary about the cultural elements of the west that come along with it and invade the recipient cultures. Both have no sense of inferiority about not knowing English. Both have very rich and traditional literatures. Both languages have very rich texts on all possible subjects.

Libyans and Koreans marry late. Libyan men were not allowed to

marry unless they had a house, car, bank balance etc., before marriage.

Both Libyans and Koreans have suffered humiliating and repressive foreign domination in the 20th century about the same time for about the same time period—Korea from 1910 to 1945 under Japan, and Libya from 1911 to 1945 under Italy, until both the colonizers were defeated in World War II. Both Libya and Korea were liberated from two prominent members of the Axis Powers, Italy and Japan, following treaties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While Korea had been initially a republic from its very inception in 1948 and in 1961 the military dictator Park Chung Hee captured power and ruled South Korea until he was assassinated in 1979, in Libya a revolution in 1969 under the leadership of Colonel Muammar Gaddafi ousted the reigning monarch and set up a dictatorship that lasted 42 years. The difference is that Korea has been in and out of dictatorships and enjoyed brief spells of democracy in between, during the period of the first five republics until 1987, when the Sixth Republic was formed which ensured a stable democratic set-up, which still holds. Libya had to wait until 2012 for this to happen.

* *

My house is by the roadside. There is a raised platform outside my window, where the "wise men" of the neighbourhood gather daily for hours and hours of "discussion," though my Libyan friends dismiss them as "gossip," while conceding that the topics of discussion are often statecraft, national events, political intrigues,

local problems, shoot-outs, and what not. They say that as I do not understand Arabic, the wise men can safely wax eloquent: my friends would often long to be here to get to the juicy aspects of the hours-long discussion. On many occasions, my friends were able to get snatches of the conversations, and glean many startling details. I tell them that I enjoy this, as it is the closest to the “tea-shop” political discussions of my highly politicized and democratic State of Kerala. In short, what our wise men here are doing is the grassroots practice of genuine democratic debate! Such a gathering would have been unthinkable during Gaddafi’s time. If at all there would have been any kind of tete-a-tete, they would also have been obliged to watch over their shoulders for possible eavesdroppers who would betray them to the internal security men. Worst still, there could have been an informer right in their midst! They could never ever dream of opening up their hearts. But within a year things have changed beyond anyone’s dreams. I have been in this house only for the last ten months(I am writing this in late October 2012); and every single day of these months, I have listened to their babble into the small hours of the morning. What more can a lover of democracy and free expression ask for than these noisy celebrations of freedom every night outside one’s window?

우주나무의 세 갈래 가지 :아랍의 신화와 설화



자카리아 모하메드 시인, 민속학자. 콜레스타인 나블루스에서 태어났으며 바그다드대학교에서 아랍 문학을 전공했다. 언론인이자 편집인으로 많은 문학잡지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마지막 시들』 『수공예』 『말은 이스카디르를 지나간다』 『일시병』 『돌』이 있으며 소설로는 『명든 눈』 『시클라멘』을 발표했다. 2006년 소설가 오수연과 함께 팔레스타인 문학인들의 산문을 엮은 『팔레스타인의 눈물』을 펴냈다.

지난 칠 년 동안 나는 이슬람 이전 아라비아의 종교에 대해 연구해 왔다. 내가 눈길을 들리는 어디에서나 한 나무를 마주했는데, 가지가 세 갈래로 뻗은 나무였다. 그 나무는 거기에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결국 나는 그 나무를 아라비아가 아닌 터키에서 발견했다. 그것은 나무 터키에 있는 고베클리 테페(Gobekli Tepe)에서 출토된 녹색 돌에 새겨져 있었다. 약 1만 2천 년 정도 된 그 음각화는 아주 선명하고 단순했다. 그것은 정말 고대 세계의 우주나무였다. 아니면 고대 세계의 균형, 계절의 균형, 신선한 물 운동의 균형이라고, 그것도 아니면 사회적 균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 사진에서 가지가 세 갈래인 나무를 볼 수 있다. 그 가지들은 세계의 세 계절을 나타낸다. 가운데 가지는 결국 한 계절로 간주되는 가을—봄의 평형을 나타낸다. 오른쪽 가지는 여름을, 왼쪽 가지는 겨울을 나타낸다.

또한 오른쪽에는 새 한 마리가 있고 왼쪽에서 뱀 한 마리가 있다. 새와 뱀은 지하의 신선한 물 운동을 표현한다. 지하의 물은 두 가지 운동을 보인다. 여름에

- 전 세계 대부분의 신화에서 나무는 성소이자 우주의 중심이며 신들의 세계와 저승, 이승을 잇는 통로이다. 이를 우주나무(혹은 세계나무)라고 한다. 우리의 신단수나 당산나무도 우주나무에 속한다. (이하 모두 역자 주)
- 터키 우르과 가까이 아나톨리아 동남 지역 언덕 위에 세워진 신석기시대의 지성소. 약 1만 년 전 수렵인들이 세운 종교 시설로 추정된다. 1994년부터 독일, 터키 공동 탐험대가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